

## 제4권 (1단원) 예수님의 비유

## (제1과) 씨 뿌리는 비유

- 본문 : 마태복음 13:1-9, 18-23
- 요절 :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흑 백배, 흑 육십배, 흑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 13:8)
- 찬송 : 260장(새찬송가 496장), 379장(새찬송가 204장)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이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흙속에 심겨지면 싹이 트고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여 아름다운 영적인 결실을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므로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결실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말씀이 역사하기에 적합한 마음의 상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신자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마음 상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교만으로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길가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는 곳이어서 언제나 단단하게 다져진 채로 있으므로 그런 곳에 떨어진 씨는 흙속에 파묻히지 못하고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다가 결국은 새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도 인간의 사상과 철학, 선입견 등에 의해 다져지면 ‘길가’와 같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굳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듯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화를 받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더군다나 원수 마귀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와서 그 사람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길가와 같은 마음은 그 어떤 선한 결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굳은 땅을 호미나 쟁기로 파헤치고 부서뜨리듯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호미와 쟁기에 의해 깨뜨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적인 모든 교만과 아집이 깨어져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호 10:12)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소중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경험을 믿는 교만을 내어 던지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흙이 깊고 보드라운 옥토와 같은 마음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 2. 인내를 배워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하셨습니다. 돌밭이란 겉에는 흙이 얇게 깔려 있으나 그 밑에는 단단한 암반이 깔려 있는 밭을 말합니다. 이런 곳에 뿌려진 씨앗은 빨리 싹이 나오나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여 결국 햇볕에 타서 말라 죽고 맙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란 인내가 부족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핍박이 다가오면 신앙의 뿌리가 없어 곧 넘어지고 맙니다.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약 1:12)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승리는 인내를 통해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인내를 배워서 어떠한 시련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배움으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핍박의 바람을 너끈히 이기고 결실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 3.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하셨습니다. 가시떨기가 무성한 곳에 떨어진 씨앗은 비록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날지라도 주위에 있는 잡초와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다 빼앗고 햇빛을 가려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밭에 자라는 가시떨기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말합니다. 세상 일로 인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의해 우리 마음이 지배를 당하게 되면, 신앙의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힘마저 상실하고 맙니다. 성경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하였고, 또한 “일락(逸樂)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딤후 5:6)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돈을 사랑치 말고 가진 바를 족하게 여김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욕심을 이기고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라야 육적이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주 안에서 누리는 영적이고 거룩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밭에 뿌려지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밭이 겸손과 인내와 성령 충만으로 가꾸어질 때 말씀의 씨앗은 뿌려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실하는 마음 밭이 되기 위해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신앙의 인내를 배우는 데 힘쓰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